

2013년 봄날,
무소유의 향기가
세상을 맑게 합니다.

법정스님

3주기 추모법회

3월 7일 오전 11시 / 설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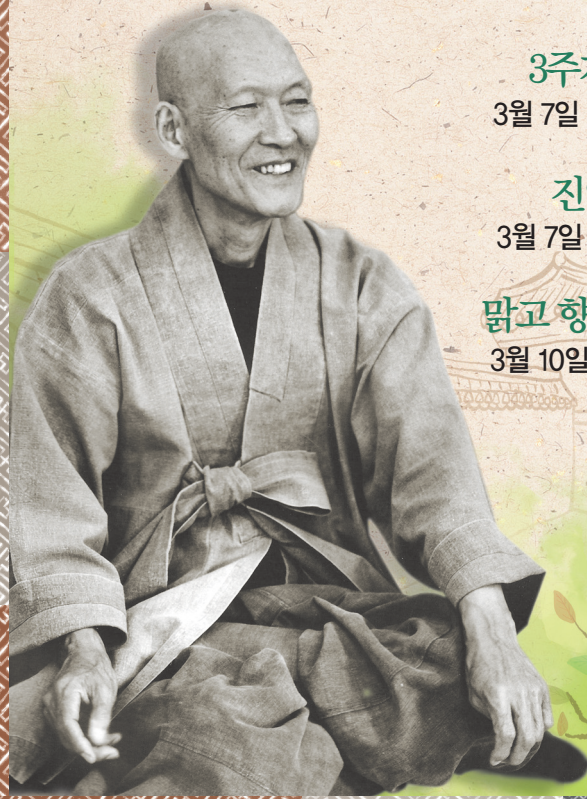
진영 봉안식

3월 7일 오후 1시 / 진영각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3월 10일 오후 2시 / 설법전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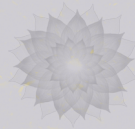
법정스님 3주기 추모판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2013년 3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17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7



장작더미 속에서
쓸 만한 참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쪽을 잇대어 만든 것인데.....

-법정-

표지 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
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자신과 진리에 의지해 꽃을 피우라

처음 마음으로 10 나누는 삶 '회향(回向)'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 15 무소유의 삶 - 법정(法頂)

스님 평안하소서!! 20 이시대의 연꽃 같은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스님 평안하소서!! 22 법정스님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24 법정스님의 머리맡에 남아 있던 책

사색의 뜰 28 소중한 편지속의 법향기

차내음 가득한 시간 31 봄을 기다리며

참교육 이야기 34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 꿈도 꾸지 마!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8 가족의 환상 - 다카페 일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1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자신과 진리에 의지해 꽃을 피우라

글 • 법 정(法 頂)

눈부신 봄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애에서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고맙게 여겨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의 만남이 고맙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요사이 절에 연등이 많이 걸려서 꽃과 잎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꽃을 머금은 나무와 풀들이 이 봄을 맞아 저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최초로 잎을 피울 때는 각자 자신의 특성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만의 빛깔을 내뽐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다 같은 초록색이 되지만,

처음 잎이 펼쳐질 때는 그 나무가 지닌 독특한 빛깔을 내놓는 것입니다. 가지마다 돌아나는 잎들도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내보이면서 찬란한 봄을 이룹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오게 됩니다. 꽃이 없는 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대지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의 봄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처럼 세계가 과소비로 치닫는다면 언젠가는 침묵의 봄이 올 것입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봄인데 벌써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늦은 봄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예상하기 힘든 기상이변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의 그 배후에는 인공의 세월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딘 세월이 반겨 줍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꽃꽂하게 버텨 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 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

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꽃이나 잎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피우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매화는 반개했을 때가, 벚꽃은 만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적이고, 배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꽃의 자세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반만 핀 벚꽃은 활짝 핀 벚꽃에 비해서 덜 아름답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본

질이 가려집니다. 봄날의 분홍빛을 지닌 환상적인 분위기가 반감되고 맙니다. 이렇듯 복사꽃은 멀리서 보아야 분홍빛이 지닌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 있고 배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꽃이 지닌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꽃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가끔씩은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영겨 있으면 이내 시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반쳐 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산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이르는 이 계절에 산벚나무가 온 국토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산벚꽃을 볼 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연의 조화와 신비 앞에 숙연해 지

기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붙박여서 살아가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 치도 옮겨 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넓힙니다. 현재의 산벚나무들은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심었거나 하면 무엇인가 거부감이 들 텐데, 자연이 뿌려 놓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버찌가 달짝지근한 것은 벚나무 자체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새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런 조화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은 그 버찌를 따 먹고 소화되지 않은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에서 틈움이 온 산에 벚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에 자연의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봄날의 은혜라 할 만합니다.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천수경>이 있습니다. 절에 범회(범회)가 있을 때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빼놓지 않고 외우지 않습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범문인데, 건성으로 따라 외우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천수경>에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 도량신이 상주한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김 없는 사실입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량신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알이 보살피고 지켜 줍니다.

신앙심이 지극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도량이 지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식이 맑은 사람들,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그 절의 분위기나 신성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

다. 도량신은 그 도량의 귀한 존재는 사람이든 나무든 그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서 필요로 않는 존재는 거부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든 나무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데, 그 도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굳이 예를 들출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저 자신의 체험적인 진실입니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도량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 도량신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에 작용해서 모든 일을 주관합니다. 그 도량신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에 작용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청정성은 진실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과 진실성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절이 과연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는 이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의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운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다는 신도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

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이 절의 재정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의 알맹이에는 소홀합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절에 가는가? 왜 절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됩니다. 삶을 개선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가 그때그때 냉엄하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상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

다. 그동안의 여러 불자들의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한때 존재하다가 없어집니다.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진리추구가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량에 사는 사람들과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략>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나날이 맑고 향기롭게 되려면 이 름 그대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가불자들이 승단에 귀의하는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과 진실성이 승가의 생명력입니다.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

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중략>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그밖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참 면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상입니다. 자귀의 법귀의(自歸依法歸依), 의지하고 기댈 것은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나는 잎과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꾸어 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치시기 바랍니다.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돌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9일 봄 정기법회

나누는 삶 '회향(回向)'

글 • 德 耘(스님)

불법(佛法)이 동토(東土)로 오고 나서 중국 6대 조사 가운데 한 분이신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심명(信心銘)』에 보면 “몽환공화(夢幻空華)를 하로파착(何勞把捉)가, 득실시비(得失是非)를 일시방각(一時放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하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체 현상계가 '꿈이고 허깨비고 허공 꽃인데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얻고 잃고 옳고 그름을 한꺼번에 놓아버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체 현상과 물건(物件)들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다 꿈이고 허깨비고 허공 꽃이란 말입니다.

왜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

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반야심경』에도 공중무색(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인연(因緣) 따라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일체 것들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꿈이고 허깨비고 허공 꽃이라 표현했으며 '무(無)'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어 있는 눈으로 사물(事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사물(事物)에 집착함이 없을 것입니다. 집착함이 없다면 애써 잡으려고, 가지려고 애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

리 인생에 생로병사와 오온개고(五蘊皆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와 같은 사고(四苦) 팔고(八苦)도 다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집착 없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자유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參禪)할 때 그 '선(禪)자도 풀이해보면 왼쪽 변에는 불시(示)가 있고 오른쪽에는 단순할 단(單)자가 쓰여 있습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뜻이고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욕심내는 물건(物件)들도 다 인연 따라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자기 것인 양 놓지 않고 쌓아두며 그리고 더욱 욕심을 부려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악착같이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이 어찌 자기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물건(物件)들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활(生活)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꼭 필요하지 않는 잉여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심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진리는 인과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는 삼세인과(三世因果)라 합니다.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어가는 것을 다음 생에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생에 어찌 좋은 마음으로 복덕을 심어 금생에 남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처럼 탐착심을 갖고, 베풀지 않고 자기와 권속만을 생각하여 자꾸 굶어모으기만 한다면 이미 그 마음은 거지의 인(因)을 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반드시 빈궁하고 빈천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이라도 그 없는 가운

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의 인(因)을 심고 있으며 이미 그 마음 상태는 부자이고 넉넉하니 다음 생에 여유롭고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생(現生)이 전부인 것처럼 아귀다툼을 벌이며 재산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끼리 다투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대낮에 눈 먼 봉사가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부정해도 태양은 허공에 밝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눈멀어서 보지 못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에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도 있는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나누는 사람도 여유롭고 행복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사회도 점점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

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찰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며 마음을 닦는 것도 허깨비 같은 물질(物質)에 대한 탐착심 즉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진실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동안거 해제하기 며칠 전부터 길상사에서 정초기도와 더불어 자비도량참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참법은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는 동시에 범계에 있는 죄를 지은 일체 중생들의 죄까지 나의 죄로 삼아 참회하는 대승참회법입니다. 이러한 참법을 수행함으로 인해 자기 마음의 법계(法界)가 더욱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도 점점 맑고 향기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선방에서는 동안거 90일 동안 많은 재가 선객들이 정진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당(法堂)에서도 많은 불자(佛子)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방에서 좌선하고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온갖 욕

망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며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90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신 재가 선객들이나 기도한 보살님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기도한 것들을 회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상사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한 것들을 회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공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기심을 키우는 것이고 결코 바른 공부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수행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불법의 근본 이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불성(佛性)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불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번뇌 망상에 가려진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없는 부처

를 배우고 익히고 닦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온전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처의 성품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인 것입니다. 즉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더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하며 또 무일물중무진장(無一物中無盡藏)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늘에는 태양이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건만 검은 먹장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 그 태양이 밝게 작용(作用)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은 먹장구름인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을 걷어 내기만 하면 태양인 불성(佛性)은 삼세를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성(佛性)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우주가 수명을 다해 멸해 없어져도 이 불성은 홀로 밝게 빛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행하고 기도해야 샅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이상한 현상이나神通력, 이런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참선한다면 여지없이 마구니의 권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불교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닦아 나아가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마음에 집착과 탐욕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서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다음은 임제 스님의 사자후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덕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두지 않듯 그렇게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구나. 해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니 맑은 하늘에 온통 햇볕이 비치고, 눈(眼) 속에 티가 없으니 허공

에 헛꽃이 없도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법(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말아라. 펼치면 곧 법계(法系)를 싸고도 남으며,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있지 않으니,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무엇이냐고 불려야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 그대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 보아라. 더 무엇이 있느냐? 설명하여도 끝이 없으니, 각자가 힘써 노력하라. 편히들 쉬어라.

이제 길고 길었던 겨울도 끝나고 산천초목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묵은 감정과 번뇌 망상을 털어버리고 집안에서도 겨우내 묵었던 먼지를 털어내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57년 동안거 해제
(2013년 2월 24일)

무소유의 삶 - 법정(法頂)

글 • 김정남(민주화 운동가)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곤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강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는 그렇다.

법정(法頂)스님의 「무소유」라는 글

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그의 나이 39살 때인 1971년이었고, 『무소유』라는 이름의 책이 출간된 것은 그의 나이 45살 때인 1976년이었다. 이 글과 책 하나로 그는 '무소유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의 「무소유」를 언제 처음 읽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이 글에서 소개한 난초 이야기는 나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었다. 법정은 어떤 스님이 보내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길렀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난초를 위해 실내온도를 내리곤 했다. 장마철 어느 날 외출했다가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난초를 뜰에 내어놓고 온 사실을 깨달았

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을 때 아니 나 다를까, 잎이 축 늘어져 있었다.

법정은 그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절절이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난을 가꾸면서부터 과연 그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쩍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집을 잠시 비울 때도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갔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놀러온 친구의 품에 선뜻 난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엽매임에서 벗어났다. 날아갈 듯 흥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흥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그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법정은 이처럼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되었다지만 나는 그 글을 읽을 무렵, 난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었다. 난정(蘭情)을 알아

야 난을 기르고 칠수 있다는데, 나는 난을 기를 줄도 칠 줄도 모르면서 꽤 많은 난분을 가지고 있었다. 남에게 주자니 아깝고, 기르자니 주체

하기 힘들고, 어디 나다니기도 어려우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법정의 글을 읽었다. 그의 말이 내게는 실감으로 와 닿았고, 그의 '무소유'를 나름대로는 어렵듯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며, 그에 의하면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에 엽매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법정은 '무소유의 달인(達人)' 같다. 봉은사 다래헌(茶來軒)에 살다가 어느 날 훌쩍 거기를 떠났고, 20년 가까이 송광사 불일암에 살더니, 강원도 이름 없는 오두막으로 훌훌히 떠났다. 그는 소유를 정리하는 일에 익숙



2009년 길상사 행지실에서

했다. 가진 것이라야 책밖에 없으니 쌓였다 싶으면 그 책을 볼 만한 친구들에게 훌어버렸다. 세상과의 연(緣)이라 할 편지 같은 것도 모아서 태워 없애는 일도 자기 삶의 정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무소유를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그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

“언젠가 우리가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아까워 못 버린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 시시로 큰마음 먹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미리부터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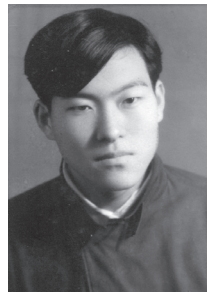
출가와 수행

법정은 1932년 10월 8일, 전남 해남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홀어머니 아래서 가난하게 자라던 그는 총명했고 또 글재주도 있었다. 그러나에게는 원고지를 살 돈이 없었다. 어느 해

소풍 때 보물찾기를 잘해서 상으로 원고지를 탔다. 그 원고지에 난생 처음으로 글쓰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그의 속세 나이 23살 전후 그는 그 어디에도 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그때는 1953년 휴전이 되어 포로송환이 있을 때였다. 그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3국을 선택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법정 또한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법정은 인간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 날 그로 하여금 출가를 결심하게 했다.

오대산으로 가던 중 서울에 내린 그는 안국동 선학원에서 효봉 스님(1888~1966)을 만나 그의 법문에 감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삭발을 했다. 싹락눈이 내리던 겨울 날이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전생애 중이었던 지, 삭발하고



1953년 청년 박재철

먹물웃으로 같이입고 보니 훨훨 날아 갈 것 같았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길로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효봉선사가 주석하던 통영의 미래사로 내려갔다. 절이라고 해야 해우소까지 합쳐 세 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암자였다. 뒤에는 암벽으로 된 미륵산 봉우리가 솟아 있고 둘레는 청청한 편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떠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이었다. 여름 장마철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도록 안개가 짙게 내리고, 아궁이는 연방 물을 퍼내야 불을 지필 수 있었다. 법정은 거기서 부목(負木)의 소임을 받았다. 하루 석 짐씩 꼬박꼬박 나무를 하고 아궁이마다 불을 지폈다.

같이 지낸 사람 가운데는 뒷날 시인이 된 고은(高銀)도 있었고, 불교신도 회장을 지낸 박완일(朴完一)도 있었다. 고생이 많았고 늘 배가 고팠다. 선원(禪院)이던 그곳은 아침으로는 멀건 죽 한 그릇, 저녁에는 낮에 남은 식은 밥 한술이 고작이었다, 국수를 씻다가 흘

린 걸 주워 먹기도 했다. 몸에 배지 않은 일에 지쳐 코피를 쏟고, 앓고 있을 때 탈진한 몸으로 정랑에 갔다가 기운이 빠져 걸어오지 못하고 영금영금 기어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은 고생은 했지만 스승 효봉과 함께했던 '삭발 불사' 시절을 더없는 그리움으로 기억하곤 했다.

1956년에 법정은 효봉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계하고, 1959년에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는다. 같은 해에 해인사의 전문 강원에서 명봉 화상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 법정은 이제 본격적인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어느 책에선가 말했다.

“너는 어째서 출가했는가,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 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 식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노라고……. 세상이 무상해서라거나 불교의 진리에 매혹되어서라거나 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뭐라 말하기 어려운 내 생명의 요구였을 것이다. 시절인연이 다가서자 그 길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다생(多生)에 길들인 인연의 꼬나풀 같은 것이 나를 그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적정처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발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다. 우리가 세속을 떠난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내가 먼저 깨닫고 나서야 남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아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간소했다. 그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는 마하트마 간디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간소한 삶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남긴 유서는 소로가 남긴 유서와 그 형식과 내용 면에

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의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불일암의 부엌에는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고 쓴 그의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가 불일암에서 17년을 보내고 강원도의 산골 오두막으로 떠난 것은 그동안의 인연이 그의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해가 떨어진 뒤에는 어떤 손님도 암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수행에 철저했다. 늘 되지도 않을 잡문들 나무랑이를 써서 헛이름만 세상에 떨침으로써 번거로운 삶을 스스로 불리들었다고 자신을 질책했다. 불가에 내려오는 선시(禪詩)로 그는 자신의 심정을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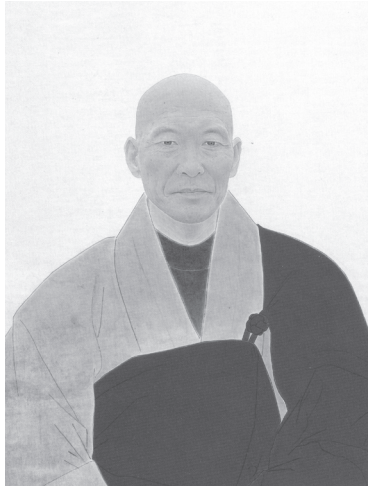
산이야 나를 좋아할 리 없건만
내가 좋아서 산에서 살지
한 산중에 오래 머물다 보니
쓸데없는 인연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4월호 계속)

* 출처: 김정남 / 두레출판사 「이 사람을 보라 -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 에서

이 시대의 연꽃 같은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1932년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서 태어났다.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인간의 선의지(善意志)와 삶과 죽음에 고뇌하며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1956년 효봉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은 후 통영 미래사, 지리산 쌍계사 탐전에서 스승을 모시고 정진했다. 이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수행자의 기초를 다지고 1959년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60년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하였고, 1967년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을 하며, 불교계 언론과 유력한 신문에서 죽비 같은 글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1973년 함석헌, 장준하등과



법정스님 진영 / 김호석 화백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75년 젊은 목숨을 앗아간 제2인혁당 사건을 목격한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아 그 해 10

월 본래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무소유 사상을 설파하며 자기다운 질서 속에 텅 빈 충만의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을 피해,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1992년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생명 중심의 세상을 명상하며 홀로 수행 정진하였다.

1993년 7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로 독립기념관,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모두 없어지는 기막힌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어이없는 심정을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로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세속 일에 관여하게 된다.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 모임’을 발족하여, 1994년 3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첫 대중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감동한 길상화(故김영한) 보살이 7천여 평

의 대원각을 시주하여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되었다.’

스님은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침상에서 예불을 거르지 않았으며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씀을 남긴 뒤 2010년 3월 11일(음력 1월 26일) 길상사에서 입적(세수 79세, 법랍 56세)했다.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였고, 입적 후에도 남은 이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 편집자 주

법정스님 고맙습니다

글 • 장익 주교

법정 큰스님과 선연(善緣)을 맺은 지는 어느덧 한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봉은사 다래헌에 계실 적부터였습니다. 자주 뵈옵지는 못했고, 또 뵈어도 서로 몇 마디 가벼운 담소만 나누었으면서도, 처음부터 마음이 통하는 그런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가끔 장익 주교와 만나다. 마음을 터놓고 만나다 보니 종교의 벽이 없다. -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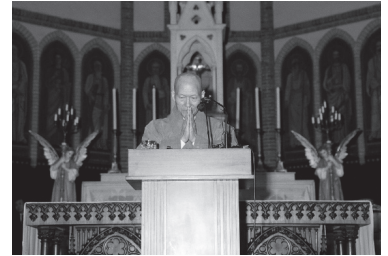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해 청학 스님을 대동하고 로마로 찾아오시어, 파리와 서울에 길상사를 짓기에 앞서, 유럽 수도승의 뿌리를 탐방하시자기에 몇몇 유서 깊은 옛 수도원으로 모시고 다니는 행복도 누렸고, 93년 여름 참신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뵈오며 기뻐했습니다.

좀 더 친근하게는, 불일암에 묵으면서 뒷마루에 호젓이 함께 앉아 저무는 날을 조용히 바라보던 때나, 남녘 어느 차밭에 자리를 깔고 햇빛앞에 씩씩 씹으며 흐뭇한 반나절을 지내던 추억도 새롭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갓 지은 법련사에서 종교와 삶에 관한 진심어린 대담을

나눈 보람된 일, 더 나아가 성북동 길상사를 세상에 여는 법요식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친히 봉축사를 하신 종교간 미증유의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큰스님께서 명동 대성당을 가득 채운 천주교 신자들을 깊이 감동시킨 성당 초유의 범문을 하신 일 등은, 앞으로 종교인들이 마땅히 가야할 길을 내어준 참으로 뜻 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이들이 참다운 깨달음을 찾아 얻어 모두가 함께하는 맑고 향기로운 삶의 길에 눈뜨게 해 주시던 법정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을 누구인들 애석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스승이요



명동 성당 100주년 기념미사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중인 법정스님 (1998년)

빛이시던 그 어른을 진정 기리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큰스님의 샘물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더욱 새로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참되이, 고맙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 춘천교구 장익

- 2010년 3월 11일 장익 주교님의

법정스님 추모 글

법정 스님과 30여 년간 교우한 장익 주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비서를 10년간 역임했다. 1994년 11월 11일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천주교 춘천교구 주교로 임명을 받은 뒤 2010년 3월 까지 16년간 춘천교구장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함흥교구장 서리도 겸임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도 맡았다.

법정스님의 머리말에 남아 있던 책

글 • 홍정근(사무국장)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신 법정스님은 유언장에 “덕진은 머리말에 남아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는 말을 남기셨다.

1971년 쓴 ‘미리 쓰는 유서’에 쓴 글을 그대로 유언장에 남기신 것이다. 스님은 ‘미리 쓰는 유서’에서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동화책이 내 머리말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저녁으로 ‘신문이오’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고 쓰셨다.

‘머리말의 책’이란 스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한 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십년의 세월에도 스님의 영혼은 한결같으며, 숲한 인연속

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과 작은 시은(施恩)조차 빛으로 생각하셨던 스님의 대쪽 같은 성품이 그대로 느껴진다.

사십년 전 법정스님에게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했던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어, 스님의 삼재가 열린 2010년 3월 31일 길상사에서 스님이 남긴 ‘머리말의 책’을 전달받았다. 중년의 소년은 초등학교생이던 1970년 공양주였던 어머니를 따라 3년 넘게 서울 봉은사에 살았는데 당시 절에 살던 유일한 초등학교생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스님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승복을 벗지 않았고, 공양을 올릴 때 조금이라도 게을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참회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마지막 떠나는 길에도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스님처럼 30대의 쓴 유언을 일흔아홉에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동안 풀어 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라며 당신의 책이 세상에 진 말빛이라고 모두 거두어가셨던 스님께서 남겨둔 머리말의 책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법정스님이 남긴 ‘머리말의 책’ 6권은 ‘월든’(헨리 소로), ‘선시’(석지현 옮김), ‘선학의 황금시대’(오경웅), ‘벽암록(碧巖錄)’(안동림 역주),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험’(르네 젤리), ‘예언자’(칼릴 지브란)이다. 스님의 영혼을 느껴보고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월든(Walden)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그렇다. 두



법정스님이 남긴 실제 책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게 하지 말라.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라.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 끼만 먹으라. 백 가지 요리는 다섯 가지로 줄이라. 이런 비율로 다룬 일도 줄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 1817~1862)의 대표작. ‘월든’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물질문명의 폐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로는 미국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형과 함께 사설 학교를 열어 잠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작가이자 사상가인 랄프 W 에머

슨(Ralph W Emerson)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틈틈이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소로는 1845년 3월부터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기 시작해 같은 해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그곳에서 홀로 지냈다. 월든 호숫가에서 2년을 지내며 기록한 것이 '월든'이다.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색

르네 켈러가 쓴 생텍쥐페리의 평전이다. 안응렬이 우리말로 번역해 1980년에 홍성사에서 나왔다. 작가 소개와 작가 연보를 비롯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남방우편기'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전시 조종사' '성채' '어린 왕자'에 대한 켈러의 해설과 감상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이고 진정한 재산은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상기시켜준다. 절판된 지 오래되어 중고서점에서 구하기 어렵다.

벽암록(碧巖錄)

중국 전통 선(禪)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으로 중국 사상 특유의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제시한 책으로 안동림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언어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세계, 일체의 지견이 끊어진 은산철벽(銀山鐵壁)에서 이토록 언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불교, 선종, 그리고 '벽암록'의 세계이다. 선의 종조(宗祖)인 달마대사와 양나라 무제(武帝)의 문답을 제1칙(則)으로 100칙까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무(無)의 궁극적 표상과 도(道)의 완성을 보여주는 선사(禪師)들의 행적과 문답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선시(禪詩)

언어를 거부하는 '선'과 언어를 전제로 하는 '시'를 통해 완성된 선시를 감상하는 법을 수록한 책. 석지현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선미시, 산정시, 이별

시, 운수시, 회고시, 선지시, 심전시, 격외시, 공안시, 오도시, 임종시의 형태로 선시를 분류해서 총 255편의 작품과 감상을 실었다.

선학의 황금시대

선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를 비롯해 선의 기원과 중요성, 벽관 바라문 달마와 그의 직계 제자, 제 육조 혜능, 마조 도일, 조주 종심, 선두 문하의 대선사들 등 당대의 위대한 선사들에 의해 체득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진인 선학의 발생과 발전, 정신을 밝힌 책으로 대만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오경웅(吳經熊)이 쓴 책이다. 1978년에 서돈각의 번역으로 한국어 초판이 나왔는데, 법정 스님은 1978년판 '선학의 황금시대'를 읽으신 것 같다. 위양종, 조동종, 임제종, 운문종, 법안종의 개조와 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불교 특히 선종 자체가 그렇지만 노자, 장자의 사상 자체에 격의된 부분이 많아 설명에 도덕경과 장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알기 쉽게 도표로 계보도를 그려 놓아 이

해하기 쉽다. 선시도 간간이 추가해서 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언자

고전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칼릴 지브란 작품으로 1998년 미국에서만 900만부 40여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성경 다음으로 많이 구독되고 판매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레마논 태생의 시인·소설가·화가로 열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며 이슬람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칼릴 지브란은 열다섯 살에 '예언자(The Prophet)'를 처음 썼다. 그는 초고를 20여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수없이 다듬고 고쳤다. 모국어인 아랍어로도 수없이 고쳤고 영어로도 퇴고에 퇴고를 거듭했다. 1923년, 미국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나서도 4년 동안 다섯 번이나 고쳐 쓴 뒤에야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칼릴 지브란이 이 작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중한 편지속의 법향기

글 • 최미자(회원, 재미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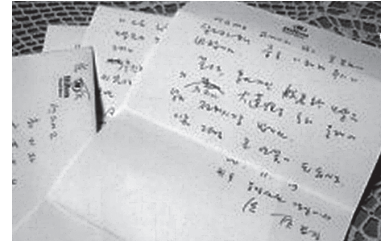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라는 법정 스님의 생전 메시지가 적혀 있는 소식지가 매달 한국에서 날아온다. 내 손바닥 크기보다는 조금 크고 50여 페이지도 안 되지만 향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알찬 소식이 들어있다. 2000년 나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는 뉴욕에 머무시는 법정 스님께 혹시 로스앤젤러스에도 오실까 하고 사십구재일 법회를 청하며 비행기 값을 보낸 적이 있었다. 여러 번 로스앤젤러스의 고려사의 초청에도 못 오시던 때라 다음 기회를 보자는 스님의 편지와 함께 나의 수표를 샌디에고로 돌려 보내 온 것이다.

스님이 절에서 펜으로 페이지마다 지우고 고친 흔적이 있는 걸 보니 법회에서 만난 인편에 급히 써서 전한 편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한국으로 백 달러의 시주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는지 사무국장이 접수했다는 뜻밖의 편지와 소식지가 날아왔다. 법정 스님은 시주금을 절대 개인의 일로 사용하지 않는 분이란 걸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 작은 소식지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도시락을 만들고 다음날 배달하는 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후원금을 내기로 하고 여태 보내고 있다. 또 뉴욕에서 나오는 미주현대불교 월간지를 통하여 좀 더 많은 후원자

를 찾으려고 나는 글을 써서 한 때 사람 들에게도 알리기도 했다.

1989년이였다. 남가주의 가드 그로브에 있는 법왕사의 법회에서 질문하던 나에게 무엇인가 느낌으로 알아보시며 눈을 반짝거리던 법정 스님. “반야행보살님 딸이지요!” 맑소사. 속으로는 감격의 눈물이라도 흐를 것처럼 난 놀랍고 반가웠다. 사실 1970년대 내가 광주의 원각사에서 점심을 드시던 스님을 바로 곁에서 자주 보면서도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던 분이였다. 송광사의 불입암에 머물며 중앙지의 조간신문에 칼럼을 쓰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중앙여고 화학 교사였고 최초로 원각사의 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조직하여 지도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스님과의 진짜 인연은 미국에서 나의 어머니 반야행 보살의 딸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나의 딸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 길상사 법회에 참석한



법정스님의 편지

내 딸의 손전화로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미국에 사는 칠순의 친정어머니에게 한국에서 법정 스님이 보낸 파란 봉함엽서를 보고 처음으로 단정하고 독특한 스님의 글씨를 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보고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일은 쉬운 인연이 아니었다. 1950년대 우리 부모님도 광주의 유명한 한약방 손동출 원장님과 인연으로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불교가 다시 일어난 셈이지만 한번도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다. 광주여고 옆에 있던 일본절(동광사)에서 윤주일 선생님의 일요 법회에 열심히 다니셨기에 나도 종종 부

모님을 따라다녔다. 또 흥용사나 신평사에 큰 스님들이 오시어 법회를 하면 반드시 그날 들은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셨기에 법문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각자 우리의 몫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스스로 선택한 불교가 마음에 깊숙이 와 닿았고 졸업 후 나의 교사 시절 구산 스님이 송광사의 삼일암에서 대련성이라는 수계를 개인적으로 주셔서 불자가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의 종교는 무종교 생활이었다. 서로 다른 종교로 집안이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나에게 불교의 길을 가라고 허락해주는 것이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훌륭한 스님들이 미국에 오시면 기회가 있는 데로 법회자리를 마련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미국에는 거의 절이 없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모시고 일상에서 살아가기

마련이었다. 눈앞에 가족은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불공드리듯 정성을 바치며 나는 도를 닦듯이 살아가고 있다. 올바른 생활이 바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에게는 작은 꿈이 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흐뭇한 이야기가 있는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를 받아보고 작은 액수라도 고국에 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한다. 일 년에 오십에서 백 불 정도를 베풀면 된다. (서울 전화 02-741-4696) 다음 나의 고국 방문길엔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사는 노인과의 결식아동을 위한 반찬을 만드는 일에 참석해보고 싶다.

최미자 회원님은 재미수필가입니다. 수필집 '레몬 향기처럼'과 '샌디에고 임탁을 출간하였고 현재 월드코리안신문에 'Essay Garden' 칼럼 연재 및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 '최미자의 문학정원'을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글 • 문정숙

해마다 입춘이 지난 후 함박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이면,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다우(茶友)를 기다리며 다실 창문을 활짝 연다.

종일 내린 눈으로 나무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함박 눈꽃송이가 바람결 따라 날아오르며 저물어가는 하늘가를 은빛으로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문득 내가 사는 곳에 사계절이 있어 철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이롭게 펼쳐진 설국의 풍경 앞에서 나는 어느새 두 손을 가슴에 모은다.

평소에 가장 아끼는 다기(茶器)를 골라 맑은 물로 헹구고 뽀뽀하게 풀 먹여

다린다포를 점검하고 약수터에서 길어온 생수를 돌솥에 부은 다음 오늘 찻차리에 어울릴 차와 음악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갈한 한복차림으로 예를 갖추어 반가운 다우를 맞아들여 꽃잎을 드리운 물에 손을 씻게 한 후 아늑한 나의 다실로 인도한다.

몇 해 전에 직접 만들어 대나무에 꿰어 보관해뒀던 떡차를 달궜진 기왓장 위에서 살짝 구워낸 후 돌 솥의 끓는 물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말도 잇은 채 차가 달여지면서 내는 솔바람 소리에 귀 기울인다.

목례를 한 후 넉넉한 다완에 담겨진 뜨거운 다탕을 문향(聞香)하며 천천히

마시면, 머리와 가슴에 물려있던 기운
이 온 몸을 돌아 등줄기를 타고 내린다.
조용하게 흐르는 전통음악의 운율에 행
복해하는 다우와 마주앉아서로의 내밀
한 영혼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다담(茶談)
은 깊고 담담하여 시간가는 줄 모
른다. 밤은 깊어가고 헤어짐을 아쉬워
하는 다우에게 자작시 한 편을 낭송해
준다.

새 봄이 오면 햇차를 만들어 '봄맛이
다례'에 먼저 초대하겠노라는 약속과
함께…….

봄을 기다리며

-청하 문정숙

태초의 침묵을 신고
나는 듯 스치는 듯
하얀 다포위에
화엄세계 펼쳐지네

술엔 씨락눈 내리는 소리
이슬 머금듯
사뭇 그리워하듯

귀 기울이네

찾잔에 떨어지는 옥빛 찻물

맑은 경쇠소리

언뜻

봄바람이 컷가를 스치네

이제 돌 솔의 물소리도 찾아들어 더
욱 고요해진 다실에 홀로 앉아 그리운
추억이 곱게 채색되어있는 찻그릇들을
다우 삼아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다관안의 찻잎이 서서히 펼쳐지는
모습, 그윽하게 코끝에 와 닿는 차향과
혀끝에 녹아드는 오미를 세밀하게 감
상하며 늦도록 혼자만의 찻자리를 즐
겨본다.

차의 품성에 맞게 정성스럽게 달여
진 한 잔의 차에는 검소하고 작은 것에
서도 기쁨을 알아차리게 하는 힘이 있
으며 생활을 싱그럽게 해주는 힘이 담
겨져 있다.

진지한 차 생활은 감성지수를 높이
고 뇌파를 느리게 하여 정신적 안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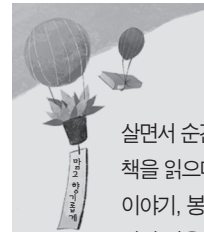
과 만족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차
의 고요함은 모든 활동을 제어하는 중
추가 되어 잡다한 정보와 소음 속에서
도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평화를 유지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차의 맛이 처음부터 맛있게 느껴지
기 어렵고 차공부도 더디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향에

젖어들다 보면 마치 란(蘭) 화분에 물을
주었을 때 물이 밑으로 모두 흘러버리
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새 잎과 꽃잎을
볼 수 있으리라.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떠오르고 느껴지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슴 찡하게 느꼈던 감동이나 속미음 또는 친환경
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신행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
던 내 마음안의 깊은 느낌이나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면서 나누었던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맑고 향기로
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중한 책 한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clean94@daum.net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 꿈도 꾸지 마!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진로 체험교육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 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이 입체적으로 정리

가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
시험 준비로 교육은 뒷전이 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요, 이를 실현할 중심 정책이 자유학기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하거나 할까?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정책이다.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에 대한 목표를 세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학교 한 학기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거나 한 일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시험 공포증에 시달리는 게 학생들의 현주소다. 입학도 하기 전에 반편성고사를 치르는가 하면 입학하기 바쁘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육청별, 시도별 서열을 매기고 기말고사 기중고사 일제고사... 등 사흘이 멀다 하고 시험을 치른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성적 제일주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시험에 대비해 선행학습이며 시험준비를 위해 두서너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벌써부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란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유학기제를 선불리 도입하면 경쟁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애므로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도록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서나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1972년.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교과 수업을 하지 않고 교과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하는 날로 정해, 아동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자유학습의 날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요인과 재정요인 그리고 교사요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루 아침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3,162개 중학교 1,849,094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인프라를 언제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들이 상담할 멘토 등 인적자원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인가? 시설여건도 그렇다. 한 학급 40명의 학생들을 어디서 개별상담을 하고 일일이 그들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여건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 학교는 경남창원시 진동면 소재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다. 이 학교는 한 학급 학생이 15명이요, 전교생 수가 145명인 학교다. 이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이틀 동안

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장래희망과 진로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멘토를 직접 찾아가 현장학습을 하는 날이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연극배우가 꿈인 학생, 웨프가 되고 싶은 학생, 복지사가 싶은 학생, 미용사가 되고 싶은 학생,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은 학생, 통역사가 되고 싶은 학생, 약사, 공무원,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 이 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 줄 학교 밖에서의 멘토 선생님을 구한다. 아니 학교에서 공고를 내 멘토 선생님들을 구해 1대 1의 멘토와 연결, 3년간 진로에 대한 안내와 현장체험을 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추는 개별화 맞춤 교육. 2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한꺼번에 준비도 없이 전문가나 상담사에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다.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거나 상담교사와 형식적인 만남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다

고 믿어도 좋을까?

태봉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성공한 매트스쿨을 모델로 '인턴십을 통한 학습'(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의 원리를 현장 교육에 적용해 성공한 케이스다. 이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길잡이 교사(advisor), 사회 길잡이(mentor),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하면서 학습계획을 짜서 배우는 인턴십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교장 여태진)는 기숙형공립대안학교다. 이 학교에는 중학교 성적 3%대에서 97%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한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 끼가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망한다. 교과서 중심의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런데 학생들을 책상 앞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학교수업은 재미 없지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멘토를 만나는 진로·탐색의 시간은 즐겁고 신난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것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40여명이 아니라 15명,

한 학년이 3개반, 전교생이 145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들은 전교생이 도시에서 멀지않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업주의 문화로부터 자유롭다. 일과가 끝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부지런히 뛰어난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지만 동아리는 두 서너 개씩 참가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한다. 학생들이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던 학생들이 목표가 정해지자 교과학습에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교육에서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이 실험용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실험학교나 조작된 통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2년간의 소중한 청소년기의 6분의 1이 시행착오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성적지상주의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가족의 환상 - 다카페 일기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요즘에는 다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 되는데다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특별한 것을 보면 일단 사진부터 찍곤 합니다.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사진을 찍는 일은 현대인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찍은 사진을 카메라와 핸드폰에 그냥 담아두지 않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 바로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사진을 뽐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로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고 올리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봤다고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RT)을 합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사고, 근사한 곳에 가서 멋지게 사진을 찍은 다음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휴일에 삼청동이나 북촌 같은 곳에 나가보면 여기 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근사한 사진이 한둘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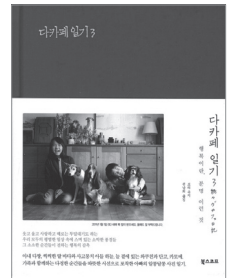
〈다카페 일기〉를 쓴 모리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업은 사진과 그래픽디자이너이지만 그 역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cafe.cc>)에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올리는 사진은 바로 그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과 아들과 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담은 가족사진들입니다. 그는 2006년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800편의 사진 일기 가운데 일부를 엄선해서 사진집 〈다카페 일기〉를 출간했는데 이 사진집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진집은 한국에서도 벌써 3권째 나왔고 홈페이지의 일일 접속자수는 7만 명에 달합니다. 가족사진에 대한 반응치고는 엄청난 반응입니다.

그 인기는 사진을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모리 유지가 찍은 사진 속의 가족은 지극히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리 유지의 아내 다짱은 예쁘고, 딸 바다 역시 엄

마를 닮아 예뻐합니다. 둘째 하늘은 장난꾸러기 사내아이이지만 귀엽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역시 작지

만 아담하고 정갈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마저 어찌면 그렇게 예쁘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사진 전문가가 찍은 사진답게 빛과 구도가 좋아서 사진 그 자체로 이미 프로급인데다 누구나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상한 남편과 예쁜 아내, 귀여운 아이들과 예쁜 집은 누구나 바라는 신화이니까요.

〈다카페 일기〉의 사진들에는 안 예쁜 모습이 없습니다. 등장하는 사람과 동물 모두 예쁘고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저분한 모습도 없고, 가난한 살림도 없고,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잠들고 장난



다카페 일기

치는 모습, 아이를 키우는 모습, 애완견들의 표정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엽기만 합니다. 모리 유지는 이렇게 예쁜 모습들을 수시로 포착해서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없다면, 또 사진기를 들고 자주 셔터를 누르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찍을 수 없는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예쁘기만 하던가요.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가족은 모든 사람들의 출발이지만 또한 모든 문제의 가장 많은 출발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맺어지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하기 힘든 권력과 의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는 사실 모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영원히 타인일 수밖에 없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어진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

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까지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개인들이 우연처럼 운명처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일은 사실 지저리 궁상일 때도 많고 정말 지지고 볶는 지긋지긋한 순간의 연속일 때도 많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가족이 되지 않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서로 원망스럽고 미운 가족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아니라서, 다정하지 않아서, 배려하지 않아서 싸우고



다카페 일기

상처받고 헤어지는 가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낮은 자존감과 정신적 상처 역시 가족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가족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되었다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카페 일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예쁜 이미지들뿐입니다. 행여누가 아프기도 하지만 금세 낫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부모가 화를 내는 것도 CF의 한 장면처럼 귀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는 가난이 없고 애환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진들만 올리기 때문이겠지만 미리 연출한 장면들처럼 깔끔하고 인상적인 사진들만 가득합니다.

부잣집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영유하고 있지 않다면 찍을 수 없는 이미지들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족은 가족 밖의 모습은 거의 담지 않습니다. 가족사진이니 당연히 가족

사진만 올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과의 교류나 사건으로는 그다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모습은 핵가족 시대의 풍경이자, 일본 특유의 지극히 단절적인 풍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의 행복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겠지요. 또한 <다카페 일기>에 담긴 소소하지만 특별한 순간들은 가족이 줄 수 있는 행복과 그걸 기록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생각해 보면 현실보다는 환상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카페 일기>에 열광하는 것은 이러한 행복이 가족 안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대리만족이죠. 완벽해 보이는 모습 속에 자신을 투사하고 모방하는 우리들. 우리의 가족은 오늘 행복한가요?



중앙모임 (02-741-4696~7)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한국은 8년째 자살률 1위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3.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뒤 8년째 자살률 1위는 불명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3.6명으로, 30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합니다.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에서 한국은 81.9명으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14.1명)의 5배, 영국(4.8명)의 20배나 되는 수치로, 2위 일본(17.9명)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보다 낮아지는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이가 많아질 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현상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10대 자살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도 있지만,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오히려 노인 자살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자살률을 높여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10명이 노인입니다. 오래 살게 될 줄을 모르고 개인도 가족도 국가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노인 자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원인이 다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살 총동 및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신변보장이 우울증으로 번져 자살에 이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며 평생을 힘들게 일했지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달나라로 우주여행을 간다는 소식이 접했을지언정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는 세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나가고자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원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법정 스님의 글 '아름다운 마무리' 중 일부를 함께 마음에 새기며, 나눔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매월 소식지에 후원이 절실한 독거노인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월 2회 서울 및 경기 지역 도심지에서 거리 홍보를 전개하려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공공부조 수혜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후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집행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이 시민 나눔 문화로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거리 홍보를 함께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길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주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나누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스님 3주기 추모법회 안내

법정스님 3주기 추모법회가 3월 7일(음 1. 26) 오전 11시부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생전 스님의 뜻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봉행됩니다. 또 이날 오후 1시 부터는 법정스님 진영을 모신 진영각(법정스님 입적하신 처소)에서 '법정스님 진영 봉안식'이 봉행됩니다. 진영각은 법정스님의 진영뿐만 아니라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쓰시던 유품들과 스님께서 출간하셨던 저서들이 진열되어,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와 진영 봉안식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시어, 뜻 깊고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월 10일 오후2시에는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설법전에서 열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하세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 장학 대상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
- 추천자 : 교사,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사회 복지사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추천서 학교 장학담당교사 확인요함)
 -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추천서 접수 마감 : 2013년 3월 23일(토) 우편소인까지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3년 4월 5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3년 4월 15일 ~ 20일 경 (미정)

2013년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마을 숲은 민족문화의 응심이 같은 문화적 자연유산입니다. 사람에게 비할 수 없는 장구한 수명을 가진 나무들이 살고 있고 외적 형상은 마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요즘 말로 랜드마크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 숲기행은 전통마을의 생활상을 통하여 마을 숲이 어떻게 조성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1. 주제 :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2.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예정지 : (변동될 수 있음)
4월-양동마을(경북 경주), 5월-외암마을(충남 아산), 6월-왕곡마을(강원 고성), 7월-한개마을(경북 성주), 8월-하회마을(경북 안동), 9월-무섬마을(경북 영주), 10월-상사마을(경남 산청), 11월-원터마을(경북 봉화)/11월 숲기행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숲기행으로 진행예정)
4. 참가방법
 - 참가신청 : 3월 11일부터 전화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팔기구 등
 - 참가비 : 미정(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참가비 결정되므로 차후 공지)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5.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송금 후 불참하게 되어 다음 달로 이월 할 때, 출발 5일전 연락 시에만 1회에 한하여 이월 가능
 - 출발 5일전까지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본인 부담)해드리며, 출발 4일전부터는 환불이 안되며, 연말 결산후원금으로 후원처리하시오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반한 취소, 변동으

로 절실히 참가하실 분의 참여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전화 주실 때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를 꼭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하세요.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벗어나 개성, 창의, 디자인,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구매해 입는 것보다 예전에 입던 옷을 수선하여 개성에 맞춰 입는 풍토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 또한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의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분들로서, 하나 청정하게 생활하면 두루 온 세상이 청정해질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3월부터 변동사항 안내

- 회원 할인 요건 : 후원회원 가입 후 3개월 후



부터 회원가 적용(1년 이내 최소 1회 이상 후원회원에 한함, 길상사 신도 또한 맑고 향기롭게 후원내역이 없을 시 할인가 적용 불가)·삼푸 ▶ 로션 ▶ 에센스 ▶ 비누는 진행 순서일 뿐,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취소되며, 본모임의 일정상, 강사 사정상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다섯째 주에는 계절에 따라 특강 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천연화장품 구입은 녹색장터에만 가능합니다.

구분	회원가	비회원가
세라미드 로션	8,000원▶9,000원	11,000원▶12,000원
한방 비누	11,000원▶12,000원	14,000원▶15,000원
한방 상백피 에센스	7,000원▶8,000원	10,000원▶11,000원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자 모집

2013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밀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참여를 권장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본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

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후원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5일(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7,14,21,28일/금- 8,22,29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은 구조보강공사로 인해 잠시 중단됩니다.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0일,17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 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21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6,13,20,27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대구모임 (053-753-8883)

3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3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경남모임 (055-266-0170)

3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

- 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3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쌀, 고춧가루, 야채, 김자반, 미역, 계란, 참기름 등등)
- 범능스님과 함께하는 노래모임
5월부터 진행될 노래모임에 동참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노래를 좋아 하는 분
-회비: 매월2만원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정 : 3월 2일 (오후7시~9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정 : 3월 9일 (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동참금 :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삼천배 철야정진

- 일정 : 3월 9일(오후8시30분~다음날 오전4시)
- 장소 : 설법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 절 수행시 좌복보호대를 사용해주세요.

춘계 관음기도 안내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추해지고,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영혼의 빛은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 염송 속에 부처님께 한발 더 다가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입재 :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 회향 :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 동참금 : 5만원

3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6일 (토) ~ 17일(일)
넷째 주말 23일 (토) ~ 24일(일)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길상사 불교대학 제 4기 개강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3년도 제4시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법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이 불교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제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 수계 받으신 분
- 개강일 : 2013년 3월 14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 : 오후1시 30분~4시 /
야간반: 저녁 7시~9시30분
- 수강료: 1년(2학기) 40만원 / 1학기(6개월) 20만원

4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관음재일	4월 4일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4월 6일	오후 8시	극락전
초하루	4월 10일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4월 13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3000배 철야정진	4월 13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극락전
보름	4월 24일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27일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오후1시 20분	조강당